

---

## 수식 너머의 세계

이청해 · 소설가

---

작년 올해 들어서 내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물건에 대한 욕심이 현저히 없어졌다는 것이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도 모든 물건이 나와 연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편한 마음으로 얼른 그곳을 나와 버리곤 한다. 새삼스럽게 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건과 나와 의 관계를 되새겨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게는 나보다 일곱 살 위인 언니가 있다. 언니는 언제부턴가 나를 만나면 곧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며 “가다가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 입고 가라.”라고 했다. 이유인즉 자기 나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는다는 것. 몇 내기는 이미 끝났으니 그 몇 내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나더러 옷을 사 입고 즐거움을 누리 보라는 뜻이었다.

당시엔 언니의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냥 나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훌륭하게 장성해 독립해 나갔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살므로 옆 사람에 대한 배려도 각별하구나 생각했다. 요즘 들어 언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언니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물건에 대한 애착이 적어지고 본연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치장을 한 사람을 만나도 요란한 외양 너머로 그 사람의 실체가 훤히 보인다. 허벅지와 가슴이 대담하게 드러난 옷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를 주렁주렁 매단 아가씨를 보면 깜찍하고 도발적인 외모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그런 외모를 연출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의 그녀의 심상, 즉 성과 남자에 대한 욕망이 느껴진다. 나는 투명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맨몸을, 속마음을, 열망을 읽는다. 코르셋으로 조여 맨 뚱뚱한 배, 에나멜 구두 속의 구부러진 발가락, 가발 속의 뻣한 머리통, 화장 지운 안색까지 낱낱이 보인다. 어떤 때는 정말 괴롭다. 나는 남들을 쳐다보기 싫어 전철 같은 곳에서 대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소설가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 생겨난 부작용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말고도, 평생 몇 부리는 데만 주력해 온 친구들도 이제 별로 옷을 사러 다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느끼는 것 같다. 이를테면 나이에서 오는 혜안 같은 것을 지니게 된 것은 아닐까.

나도 젊어서 물건개나 사던 시절이 있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옷이나 핸드백 구두 같은 것을 줄곧 사러 다닌 것이 아니라 주방용 칼이나 주전자, 도마 따위를 거둬거둬 사곤 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불필요한 낭비였고, 그 때문에 집안 식구들에게 번번이 지청구를 들었다. 왜 자꾸 샀느냐 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내 성미 탓이었다. 집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다 보면 어딘지가 마음에 차지 않았고, 보다 더 적절한 것을 원하게 되었고, 편리와 모양, 기능, 다른 것들과의 조화 등에서 최고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추구를 멈출 수 없었다. 절충과 타협이 도저히 되지 않았고, 포기는 더욱 안 되었다. 새로운 방식의 물건이 나오면 그것을 사서 시험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결국 새 것을 샀고, 사용하지 않게 된 칼과 냄비와 도마를 무수히 남들에게 주었다. 어느 날인가부터 주방에 대한 내 관심은 시들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버린 것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수준으로 변했다. 나의 편집

증이 다른 방향으로 투사된 탓이다.

나중에, 유명한 요리사에게서 냄비 두 개와 프라이팬 한 개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깔깔 웃었다. 나는 요리를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주방용품 을 자주 샀던 게 아니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연필을 자주 사는 것처럼, 관심이 기구에 머물렀던 것뿐이다. 요리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문장을 쓸 때도 나는 처음에는 수식이 많은, 보다 상세한, 보다 감성적이고 보다 화려한 문장들이 좋았다. 봄에 진달래꽃이 가득 핀 산처럼 불가사의하고 숨 막히며 막연한 문장들이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흥 내를 냈고, 밤새워 문장 앞에 앉아 있곤 했다. 그러나 소설 전편을 만연체로 쓸 수는 없었다. 내용 전달을 하다 보면 문장 같은 건 의식에서 사라지는 수도 많았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언어란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 생겨난 기호지만 완벽한 전달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적절한 단 하나의 문장. 가장 알맞은 단 하나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설사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정서 위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생판 다르게 전달되기 일쑤라고, 쓰는 사람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이 역학 관계를 깨닫고 나자, 나의 생각을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전달하겠다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나자 문장들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문장들은 의무의 짐을 벗고 훌훌해졌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구부리고 서고 앉고 누웠다. 어느 날 보면 문장들은 자기들 자리에서 독자적으로 자생하고 있었고,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세상에 없는 진기한 꽃들을 피워 냈다. 단어들도 바람에 날리며 스스로 씨앗을 떨어트리고 생명을 키워 나갔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 자체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접속사 하나, 구두점 하나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단락 속에서 저희들의 규율대로, 호흡대로 돌아갔다. 예를 들어 맨 위 문장을 내가

억지로 고치면 그 뒤의 모든 문장들이 꿈틀대며 고쳐진 문장과의 어울림을 주문했다. 그것이 구문일 때도 있었고, 의미나 정서일 때도 있었고, 음감일 때도 있었다. 나는 모든 문장 요소를 개체로 존중해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들을 맨 처음 선택한 나의 감각이 내 개성이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던 문장들은 결국 최초의 것으로 돌아왔다.

나는 요즘 아주 단순한 문장들이 좋다. 옷을 요란하게 입고 장신구를 주렁주렁 단다고 해서 멋쟁이가 아니듯이 문장도 너무 수식이 과하면 유치하고 졸렬해진다는 생각이다. 너무 장황하거나 화려한 문장을 만나면 책상에 앉아 그 문장을 만들어 냈을 지은이의 성정과 숨은 욕망이 드러나 보여 측은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나름으로 내 문장을 비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고 나면 우선 문장들을 쳐 내기 시작한다. 그 과정이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수식이 거의 없는, 정곡을 찌르는, 뼈대만 남은 알몸의 문장을 나는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단숨에 소통되고 싶고,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존재하고 싶고, 세련된 은유만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는 글에 가 닿고 싶다. 수식이 부질없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끔 느끼지만, 적당한 옷과 장신구를 걸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지만 굳더더기가 너무 싫다. 성격 탓일 것이다. 나는 쳐 내고, 쳐 내고, 또 쳐 낸 뒤에, 마지막으로 운율에 매달린다. 산문에도 운율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운문의 운율보다도 더 중요하다. 산문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수고를 덜어 주어야 하고, 읽는 시간 동안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물론 내용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글자를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운율로 먼저 즐거움을 주자고 마음먹었다. 나는 혀에 짹 짹 붙는, 단숨에 읽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소설 전편에 운율을 짜 넣느라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책을 열 권 가량 내는 동안 그런 노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최근에야 그런 내 노력들에 대한 결실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낸 내 책을 읽고 하룻밤에 썼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앞머리만 조금 읽고 자려고 가지고 누웠다가 밤을 새워 속사포로 끝까지 읽었다는 것. 자기들이 쉽게 읽었으니 쉽게 썼으리라고 짐작하는 건 순진한 발상이지만 빠르고 재미있게 읽히겠다는 목적은 성취한 셈이다. 쉽게 읽히면서 주제를 목적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는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내 취향에도 꼭 와 닿는 시들이 있다. 눈을 감고 읊조려 본다.

파도가 머리를 곳곳이 세우고 달려와  
단 한 차례 방파제를 들이받곤  
거대한 물보라를 남기며 스러진다

수평선 쪽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문득 머리를 들고  
잔잔하게 하늘을 가른다.

이시영 시인의 ‘아름다운 분할’이라는 시. 일부만 뽑아서 인용한 게 아니라 시의 전문이다. 갈매기와 파도가 한순간 펼쳐 보인 대칭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시인은 정말 지독히 단순하게 표현했다. 단 두 가지 사물만 끌어들여서, 우주와 대자연의 아름다운 분할을 기막히게 묘사한 것이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나는 이 시인을 사적으로 모른다. 책날개에 쓰여 있는 그의 이력으로 보아 나와 동년배라는 것을 알 뿐. 이 시인도 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단순함에 이른 것인가 짐작해 보곤 한다. 그의 시에는 이런 것도 있다.

가로수들이 축축이 비에 젖는다  
지우산 쓰고 옛날처럼 길을 건너는 한 노인이 있었다  
적막하다

‘사이’라는 시의 전문이다. 가로수 풍경과 한 노인의 삶 ‘사이’에서 노  
니는 마음이 횡적 시간을 단숨에 아우르며 울컥하게 전해진다. 간결함이  
극치에 이른 이런 경지에 나도 도달하고 싶다.